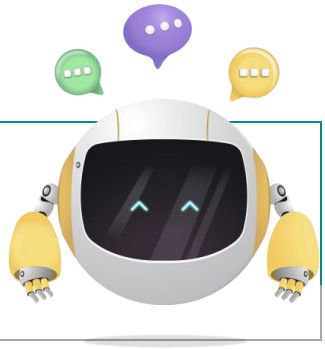
Tech&Stock Weekly

2026.05.22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스페이스X S-1 핵심 관전 포인트

미국 우주 산업: 스페이스X S-1 주요 시사점

- 스페이스X S-1를 통해 공개된 재무제표 중 주목하는 지표는 26년 1분기 매출 성장과 순손실 규모
- IPO 목표 밸류에이션 1.75조 달러 이상으로 2026년 매출 전망치(260~300억) 기준 PSR 60배 정도를 예상했으나 S-1에 공개된 2026년 1분기 매출액이 47억(+15% YoY)으로 2026년 연간기준 50% 성장을 추정한 전망치를 크게 하회
- 1분기 매출에 영향을 준 요인은 발사 매출이며 스타링크 발사 비중 상승이 고객용 발사 매출을 줄이면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구조. 이 문제의 해소는 스타쉽 상용화. 스페이스X의 스타쉽 상용화 목표 시점은 2026년 하반기. 스타쉽의 단계별 시범 발사가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어 하반기 상용화 성공 여부와 매출 기여 정도가 하반기 성장률 회복의 주요 변수
- 2026년 매출 성장에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은 Anthropic 컴퓨팅 계약. 5월~6월 램프업 이후 월 12.5억 달러 컴퓨팅 매출 인식 시작되면 연간으로 약 80~90억 규모의 신규 AI 매출 추가 가능.
- 2025년 순손실 49억 달러 기록 이후 26년 1분기 순손실 규모는 43억. 1분기에 차입금 조기상환에 따른 일회성 비용 19억 달러를 제외하면 순손실은 24억 달러로 전년동기 5.3억 달러 대비 확대. 스타쉽 개발 및 발사 시설 투자 가속화와 AI 인프라와 인건비 비용 증가가 주요인
- S-1을 통해 IPO 목표 밸류에이션의 멀티플 부담이 예상보다 더욱 클 수 있음을 시사.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는 스타쉽 발사 성공과 상용화 안착이며, 이를 기반으로 스타링크 V3 대량 궤도 배치와 우주 데이터센터 구현까지 전략 사업이 순차적으로 가시화 될 수 있음. 스타쉽 일정 및 초기 상용화 성과에 따라 시장의 밸류에이션 눈높이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스타쉽은 단순한 기술 마일스톤을 넘어 SpaceX의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실행 변수로 주목.

엔비디아(NVDA.US): AI 인프라 수요 견조, 성장축은 CPU, 네트워킹으로 확장

- AI 고객 기반과 응용 분야 확대, AI 인프라 수요 지속, 엔비디아의 확실한 지배력을 확인한 호실적을 달성했음에도 과거의 높은 서프라이즈 대비 Beat 폭이 다소 무난한 수준으로 해석되면서 주가는 미진하게 반응. 그러나 CPU, 네트워킹 같은 새로운 성장 엔진이 가속화 되는 것 확인. CPU의 경우 올해 단일 제품만으로 200억 달러 규모의 매출 달성이 예상 되며, 네트워킹은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 상회를 견인.
- 데이터센터 매출 비중이 '하이퍼스케일러'와 'AI 클라우드,산업,엔터프라이즈'로 거의 절반씩 나뉘어 고객 기반 다양성 입증
- 베라 루빈의 3분기 생산 출하 개시 일정 유지되고 블랙웰, 루빈 합산 매출이 CY2025년~2027년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기존 전망 재확인된 점은 긍정적. 다만 FY27년 영업비용 증가율이 40% 후반대로 제시되면서, 높은 R&D, AI 인프라 투자 부담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둔화 가능성은 아쉬운 포인트

알파벳(GOOGL.US): Google I/O 2026, AI Agent 플랫폼 전환 본격화

AI 사용량 폭증과 Capex 확대

- 월간 처리 토큰이 2년 전 9.7조 개 → 작년 480조 개 → 현재 3.2경 개로 증가
- Gemini App은 월간 사용자 9억 명을 넘었고, AI Overviews는 월간 25억 명, AI Mode는 10억 명 이상 사용 중
- Capex도 2022년 310억 달러에서 올해 1,800~1,900억 달러 수준(1Q26 실적 발표 당시와 동일)으로 약 6배 확대될 예정

AI 사용량 폭증과 Capex 확대

- 월간 처리 토큰이 2년 전 9.7조 개 → 작년 480조 개 → 현재 3.2경 개로 증가
- Gemini App은 월간 사용자 9억 명을 넘었고, AI Overviews는 월간 25억 명, AI Mode는 10억 명 이상 사용 중
- Capex도 2022년 310억 달러에서 올해 1,800~1,900억 달러 수준(1Q26 실적 발표 당시와 동일)으로 약 6배 확대될 예정

Google Search의 재정의

- Search를 '처음부터 끝까지 AI 검색'하는 것으로 표현함. AI Mode는 월간 10억 명 이상이 사용 중이고, AI Mode 질의는 분기마다 2배 이상 증가 중
- Search Agents는 사용자가 조건을 주면 하루 24시간, 주 7일 정보를 계속 감시
- 더 중요한 변화는 생성형 사용자 화면임. Search가 질문에 맞춰 대화형 위젯, 도표, 소형 앱, 현황판을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구조로 바뀌고 있음. 이는 기존처럼 검색 결과 링크를 나열하는 방식보다 한 단계 더 업무 완결에 가까운 형태
- 상거래 영역에서는 Universal Cart를 핵심 축으로 제시함. Universal Cart는 Search, Gemini, YouTube, Gmail 어디서든 상품을 담아두면 가격 하락, 재입고, 카드 혜택, 제품 간 호환성까지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통합 장바구니. 여기에 Shopping Graph가 보유한 600억 개 이상 상품 목록이 결합되면서, 상품 검색에서 구매 실행까지 이어지는 AI 상거래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구조
- Google Search는 '정보 탐색'에서 '정보 추적 + 화면 생성 + 구매 실행' 플랫폼으로 변화 중

미국 우주 산업

스페이스X S-1 핵심 관전 포인트

- 스페이스X S-1를 통해 공개된 재무제표 중 주목하는 지표는 26년 1분기 매출 성장과 순손실 규모
- IPO 목표 밸류에이션 1.75조 달러 이상으로 2026년 매출 전망치(260~300억) 기준 PSR 60배 정도를 예상했으나 S-1에 공개된 2026년 1분기 매출액이 47억(+15% YoY)으로 2026년 연간기준 50% 성장을 추정한 전망치를 크게 하회
- 1분기 매출에 영향을 준 요인은 발사 매출이며 스타링크 발사 비중 상승이 고객용 발사 매출을 줄이면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구조. 이 문제의 해소는 스타쉽 상용화. 스페이스X의 스타쉽 상용화 목표 시점은 2026년 하반기. 스타쉽의 단계별 시범 발사가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어 하반기 상용화 성공 여부와 매출 기여 정도가 하반기 성장률 회복의 주요 변수
- 2026년 매출 성장에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은 Anthropic 컴퓨팅 계약. 5월~6월 램프업 이후 월 12.5억 달러 컴퓨팅 매출 인식 시작되면 연간으로 약 80~90억 규모의 신규 AI 매출 추가 가능.
- 2025년 순손실 49억 달러 기록 이후 26년 1분기 순손실 규모는 43억. 1분기에 차입금 조기상환에 따른 일회성 비용 19억 달러를 제외하면 순손실은 24억 달러로 전년동기 5.3억 달러 대비 확대. 스타쉽 개발 및 발사 시설 투자 가속화와 AI 인프라와 인건비 비용 증가가 주요인
- S-1을 통해 IPO 목표 밸류에이션의 멀티플 부담이 예상보다 더욱 클 수 있음을 시사.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는 스타쉽 발사 성공과 상용화 안착이며, 이를 기반으로 스타링크 V3 대량 궤도 배치와 우주 데이터센터 구현까지 전략 사업이 순차적으로 가시화 될 수 있음. 스타쉽 일정 및 초기 상용화 성과에 따라 시장의 밸류에이션 눈높이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스타쉽은 단순한 기술 마일스톤을 넘어 SpaceX의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실행 변수로 주목.

26년 1분기 매출 지표

- 2025년 매출액은 187억 달러로 YoY 33% 증가했으나 26년 1분기 매출액은 46.9억 달러로 15% 증가
- S-1 공개 전 2026년 매출액 전망치는 스타링크(190~200억), 발사(45~50억), xAI (50~60억) 수준으로 전체 매출액 260~300억 (+50% yoy) 예상되었으나 26년 1분기 매출액은 예상보다 성장 폭이 크게 낮아 2026년 전망치를 크게 하회
- 1분기 발사 매출이 6.2억 달러(-28.4% YoY)로 전년대비 부진이 주요인. 발사 수는 증가(36회→40회)했으나 내부 스타링크 발사 비중 상승으로 고객 발사가 12회에서 7회로 감소. 스타링크 발사 비중이 늘어나면 발사 매출은 줄어드는 구조. 이 점은 스타쉽 상업 운용이 시작되면 바로 해소되는 문제. 스타쉽 상용화 시점은 2026년 하반기가 목표. 스타쉽 상용화 성공에 따른 발사 매출 반등 여부가 하반기 성장률 회복의 주요 변수.
- AI 사업부 매출은 8.2억 달러(+13%)로 AI솔루션과 인프라 매출은 4.8억 달러로 67% 성장했으나 X 광고 매출이 23% 하락. X플랫폼 광고 시스템 개편 영향과 계절성 요인 때문.
- 스타링크 매출은 32.6억 달러로 32% 증가하여 양호하나 ARPU 하락이 구조적으로 가속화. 스타링크 가입자 수가 105% 증가하며 ARPU 희석을 상쇄하고 있으나 해외시장 확장과 저가 요금제 추가로 향후 ARPU 하락세 지속 예상. 이 부분도 스타쉽 상용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것. 가입자 규모 확대와 발사/위성 원가절감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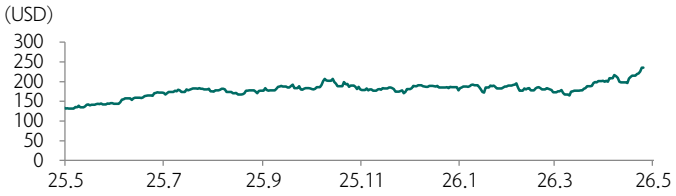
1분기 순손실 42.8억 달러, 일회성 비용(19억) & AI 인프라 투자 가속화

- 2025년 영업손실 -26억 달러(OPM -14%) 기록, 2026년 1분기 영업손실 -19억 달러(OPM -41%).
- 1분기에 스타링크는 영업이익 12억 달러(OPM 36.5%) 달성했으나 발사와 AI가 영업손실 각각 -6.6억, -24.7억 달러 기록
- 스타쉽 개발과 발사 시설 투자 가속화, 외부 발사 고객 매출 감소가 주요인이며, AI 손실 확대는 GPU 감가상각,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 인건비 증가가 주요인
- 1분기 순손실 42.8억 달러로 2025년 연간 순손실 49.4억 달러와 유사한 수준이나 1분기에 차입금 조기상환에 따른 일회성 비용 19억 달러 영향 때문

엔비디아

상장 국가
미국
산업
반도체
시가총액(십억달러)
5,412

최근 주가 추이



엔비디아(NVDA.US): AI 인프라 수요 견조, 성장축은 CPU, 네트워킹으로 확장

- AI 고객 기반과 응용 분야 확대, AI 인프라 수요 지속, 엔비디아의 확실한 지배력을 확인한 호실적을 달성했음에도 과거의 높은 서프라이즈 대비 Beat 폭이 다소 무난한 수준으로 해석되면서 주가는 미진하게 반응. 그러나 CPU, 네트워킹 같은 새로운 성장 엔진이 가속화 되는 것 확인. CPU의 경우 올해 단일 제품만으로 200억 달러 규모의 매출 달성이 예상 되며, 네트워킹은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 상회를 견인.
- 데이터센터 매출 비중이 '하이퍼스케일러'와 'AI 클라우드,산업,엔터프라이즈'로 거의 절반씩 나뉘어 고객 기반 다양성 입증
- 베라 루빈의 3분기 생산 출하 개시 일정 유지되고 블랙웰, 루빈 합산 매출이 CY2025년~2027년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기존 전망 재확인된 점은 긍정적. 다만 FY27년 영업비용 증가율이 40% 후반대로 제시되면서, 높은 R&D, AI 인프라 투자 부담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둔화 가능성은 아쉬운 포인트

FY27Q1 주요 지표

- 1분기 매출 816억 달러 (예상치 790억 달러), YoY +85%, QoQ +20%. 3개 분기 연속 YoY 성장률 가속. 조정 EPS 1.87달러 (예상치 1.77달러)
- GAAP GPM 74.9%, 조정 GPM 75%로 QoQ 거의 보합. 블랙웰 시스템이 출하의 대부분 차지
- Data Center 매출 750억 달러, YoY +92%, QoQ +21%. 하이퍼스케일러 매출 380억 달러로 DC의 약 50%, QoQ +12%. ACIE(AI Cloud + Industrial + Enterprise) 매출 370억 달러, QoQ +31%. 이 중 AI Cloud 매출은 YoY 3배 이상. Sovereign 매출은 YoY +80% 이상. NVIDIA AI 인프라가 약 40개국, 50조 달러 GDP 권역에 배치
- DC Computing 매출 604억 달러 (예상치 610억 달러), YoY +77%. DC Networking 매출 148억 달러 (예상치 128억 달러), YoY 약 3배 증가
- 분기 배당 0.01달러 → 0.25달러로 인상, 800억 달러 자사주매입 추가 승인
- 2분기 매출 가이던스 910억 달러 ± 2% (예상치 874억 달러), 성장은 DC 주도. GAAP/조정 GPM 74.9%/75% ± 50bp, FY27 연간 GPM은 mid-70s 유지
- 중국 H200 라이선스는 승인됐으나 아직 매출 발생 없음. 가이던스에 중국 DC Compute 매출 불포함

CPU TAM 2000억 달러

- CPU TAM은 2000억 달러에 달하며, 올해 베라 단독 매출은 200억 달러 예상
- 베라는 커스텀 ARM 기반 agentic AI 전용 CPU. 루빈 GPU와 NVLink로 연결. x86 대비 코어당 성능 1.5배, 와트당 성능 2배, 랙당 밀도 4배.
- 베라는 4가지 경로로 출하. 1) 베라 루빈 시스템 내, 2) 베라 단독, 3) 스토리지 서버용, 4) 보안 서버용. 200억 달러 매출은 2) 단독 매출만을 지칭함
- 베라의 ASP가 약 8,000달러라고 가정하면 올해 출하량은 250만 대. 베라당 SOCAMM 용량은 192GB, 128GB를 제공하며 총 8개 배치. 베라당 SOCAMM 중간값 사용시 1,280GB. 250만 대의 베라 출하 시, 총 32억 GB(256억 Gb)의 신규 SOCAMM 수요 발생. 26년 디램 3사 SOCAMM 공급량은 300억 Gb 수준. 베라 SOCAMM만으로 현재 디램 3사의 메모리 공급량 수준에 도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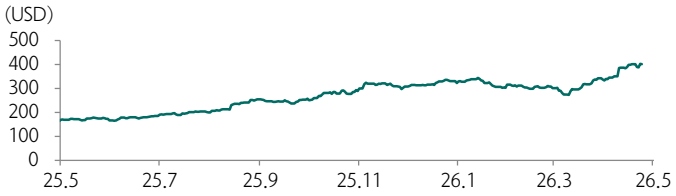
네트워킹 급성장

- 네트워킹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증가하며 예상치를 20억 달러 비트함. 데이터센터 컴퓨팅(YoY +77%) 대비 성장률이 훨씬 가파름
- Spectrum-X(AI 전용 end-to-end 이더넷 플랫폼)가 모든 이더넷 네트워크 경쟁사 규모를 합친 것보다 커짐
- InfiniBand는 차세대 XDR 기술 deployment를 기반으로 YoY 4배 이상 성장. 즉 이더넷·인피니밴드 양쪽 모두 트래픽 폭증
- AWS와의 협업이 GPU 100만대 이상 + Spectrum Networking 공동 전개로 확장

알파벳

상장 국가
미국
산업
빅테크
시가총액(십억달러)
3,838

최근 주가 추이



알파벳 (GOOGL.US): Google I/O 2026, AI Agent 플랫폼 전환 본격화

AI 사용량 폭증과 Capex 확대

- 월간 처리 토큰이 2024년 9.7조 개 → 2025년 480조 개 → 현재 3.2경 개로 증가
- Gemini App은 월간 사용자 9억 명을 넘었고, AI Overviews는 월간 25억 명, AI Mode는 10억 명 이상 사용 중
- Capex도 2022년 310억 달러에서 올해 1,800~1,900억 달러 수준(1Q26 실적 발표 당시와 동일)으로 약 6배 확대될 예정

Gemini 3.5 Flash + Antigravity

- Gemini 3.5 플래시를 최전선급 지능과 실행 능력을 함께 갖춘 모델로 소개. 다른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보다 결과를 내는 속도가 4배 빠르고, Antigravity 환경에서는 12배 빠르게 작동하도록 최적화
- Antigravity는 단순히 코드를 대신 써주는 도구가 아님. 여러 개의 하위 작업자가 동시에 일을 나눠 처리하는 능동형 개발 플랫폼에 가까움. 실제 시연에서는 93개의 하위 작업자가 12시간 동안 1만 5,000건 이상의 모델 요청과 26억 개의 처리 단위를 사용해 작동 가능한 운영체제를 만듦
- 해당 운영체제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개발자 사용권 기준 1,000달러 미만. AI가 개발자를 옆에서 돕는 수준을 넘어, 여러 인공지능 작업자가 하나의 개발팀처럼 프로젝트를 쪼개고, 코드를 작성하고, 시험하고, 수정하는 단계로 진화

Google Search의 재정의

- Search를 '처음부터 끝까지 AI 검색'하는 것으로 표현함. AI Mode는 월간 10억 명 이상이 사용 중이고, AI Mode 질의는 분기마다 2배 이상 증가 중
- Search Agents는 사용자가 조건을 주면 하루 24시간, 주 7일 정보를 계속 감시
- 더 중요한 변화는 생성형 사용자 화면임. Search가 질문에 맞춰 대화형 위젯, 도표, 소형 앱, 현황판을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구조로 바뀌고 있음. 이는 기존처럼 검색 결과 링크를 나열하는 방식보다 한 단계 더 업무 완결에 가까운 형태
- 상거래 영역에서는 Universal Cart를 핵심 축으로 제시함. Universal Cart는 Search, Gemini, YouTube, Gmail 어디서든 상품을 담아두면 가격 하락, 재입고, 카드 혜택, 제품 간 호환성까지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통합 장바구니. 여기에 Shopping Graph가 보유한 600억 개 이상 상품 목록이 결합되면서, 상품 검색에서 구매 실행까지 이어지는 AI 상거래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구조
- Google Search는 '정보 탐색'에서 '정보 추적 + 화면 생성 + 구매 실행' 플랫폼으로 변화 중

AI/플랫폼

엔비디아(NVDA.US): 중국 H200 재진입 기대 재부각

- 젠슨 황 CEO는 트럼프-시진핑 회담 이후 중국이 장기적으로 미국산 AI 칩 수입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하지만 이는 아직 확정된 수주나 매출 인식이 아니라 정책 변화에 따른 업사이드 옵션
- 젠슨 황 CEO는 중국을 엔비디아에 약 500억 달러 규모의 기회로 언급해왔고, 회사는 현재 중국 AI 칩 매출을 사실상 0으로 보고 있어, 향후 중국 승인 여부는 단기 실적보다 FY27 이후 매출 상향 및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인
- 동시에 젠슨 황 CEO와 델 CEO는 AI 수요가 최소 10년간 공급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강하며, 특히 메모리가 핵심 병목이라고 언급

아마존(AMZN.US): Alexa+에 AI 팟캐스트 생성 기능 추가

- Alexa+에 사용자가 원하는 주제를 말하면 AI 진행자 2명이 대화 형식으로 풀어주는 'Alexa Podcasts' 기능을 추가. 사용자는 주제를 입력한 뒤 생성 전 개요, 분량, 방향성을 조정할 수 있고, 완성된 에피소드는 Echo Show나 Alexa 앱에서 알림을 통해 재생 가능
- 콘텐츠는 Reuters, AP, Washington Post, Vox, Politico 등 200개 이상 뉴스·출판 파트너의 정보를 활용한다고 밝혔고, 기능적으로는 구글 NotebookLM의 AI 팟캐스트와 유사

메타(META.US): 루이지애나 2000억 달러 데이터센터 확장, 인력 재배치

- 루이지애나주 Richland Parish에 세계 최대급 AI 데이터센터 Hyperion을 건설 중이며, 총 투자 규모가 2,000억 달러 이상으로 커질 수 있고 컴퓨팅 전력만 5GW, 전체 캠퍼스 기준 최대 7.5GW 전력을 필요로 할 수 있음
- 이는 단순 데이터센터 증설이 아니라 100만 GPU급 AI 클러스터를 확보하려는 메타의 장기 인프라 베팅으로, OpenAI·Google·Amazon과의 AI 모델 경쟁에서 자체 컴퓨팅 병목을 해소하려는 전략
- 메타는 약 10% 수준인 8,000명 규모의 인력 감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고, 동시에 7,000명 이상을 AI 클라우드 인프라와 내부 AI 에이전트 'Hatch' 관련 조직으로 재배치하는 등 인적 자원을 AI 중심으로 강제 재배분하고 있음. 저커버그 CEO는 AI로 기존 업무 생산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빠른 제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음

인텔(INTC.US): 트럼프 대통령, 인텔 지분 "더 많이 요구했어야 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Fortune 인터뷰에서 지난해 미국 정부가 Intel 지분 약 10%를 확보한 것에 대해 "더 많이 요구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당시 약 100억 달러 투자로 확보한 지분 가치가 500억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고 주장
- 해당 지분은 CHIPS Act 및 Secure Enclave 관련 지원금을 비의결권 주식으로 전환한 구조로, 정부가 Intel의 주요 주주가 됐지만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은 없는 형태

씨게이트(STX.US): 증설 리스크 부각

- 씨게이트 CEO Dave Mosley는 JPMorgan 컨퍼런스에서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맞추기 위해 신규 공장이나 장비 증설에 나서더라도 "너무 오래 걸린다"고 언급. 고객 수요가 현재 회사가 확보한 4~5개 분기 생산 가시성을 넘어설 정도로 강하다고 설명
- 시장은 이를 단순한 수요 강세가 아니라, AI 인프라 확장 속도를 스토리지·메모리 공급망이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면서 당일 씨게이트 주가는 약 6.9% 하락

오픈AI(비상장): Brockman의 제품 전략 총괄 공식화

- 공동창업자 겸 사장 Greg Brockman이 제품 전략을 공식 총괄하는 조직 개편을 진행
- 핵심 변화는 ChatGPT, Codex, API를 별도 제품군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 경험으로 묶어 소비자용 챗봇, 개발자 코딩툴, 기업용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에이전트 플랫폼으로 재배치하려는 점

앤스로픽(비상장): Stainless 인수로 Claude 개발자 생태계 내재화

- OpenAI, Google, Cloudflare 등 경쟁 AI 업체들도 사용하던 개발자 도구 스타트업 Stainless를 인수하며 Claude API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를 내부화함
- Stainless는 API 명세를 기반으로 Python, TypeScript, Kotlin, Go, Java 등 여러 언어의 SDK를 자동 생성·유지보수하는 회사로, API가 바뀔 때마다 SDK를 자동 업데이트해 개발자 경험을 크게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
- 인수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The Information은 거래 규모가 3억 달러 이상일 수 있다고 보도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5월 22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2026년 5월 22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